

第三章 概説書・参考書・基礎資料 ……………横超慧日……246
 第四章 學會誌と論文集 ……………横超慧日……269
 第三編 インド學研究への道しるべ
 インド學散策 ……………雲井昭善……287-315
 第四編 日本佛教研究文獻要覽 ……………白土わか・坂東性純……(1)-(50)

본서 제1편의 1,2,3,4,8장 정도가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의 안내가 된다.

2. 『佛敎研究入門』平川彰編, 東京, 大藏出版, 1884.

(우리말 번역:楊氣峰譯, 서울, 經書院, 1988)

본서의 다음 논문들이 관련있는 논문.

「總論 - 佛敎研究の手引」平川彰, pp.7~30.

본 논문은 불교연구를 위한 총괄적인 어드바이스로써 1. 불교연구의 두 가지 방법, 2. 연구 전반에 대한 개설서와 기초학, 3. 대장경, 4. 사진·문법서·색인·목록, 5. 연구의 자세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분별로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原始佛敎」塚本啓祥, pp.33~46.

이 논문은 간략하지만 원시불교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논문이다.

「俱舍論」田中教照, pp.47~59.

「アビダルマ」加藤純章, pp.60~74.

위의 두 논문은 주로 北傳의 아비달마에 대한 입문을 위한 논문이지만 팔리아비달마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된다.

3. 「日本の阿毘達磨佛敎研究」釋厚觀, 『諦觀』第72期, 臺北, 諦觀雜誌社, 1993, pp.1~53.

위의 논문은 일본에서의 아비달마불교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중국어로 쓰여진 논문이다. 필자인 釋厚觀 스님은 대만에서 유학와서 현재 東京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阿毘達磨 및 大智度論을 연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釋厚觀 스님에게서 직접 받아서 참고로 삼을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스님께 감사드린다.

본 논문은 아비달마 논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남북전 아비달마불교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정리한 논문이다. 특히 北傳 아비달마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일본의 구사학·유식학 연구현황 개관

李鍾徹

〈目次〉

1. 일본의 구사학연구 개관	2. 일본의 유식학 연구 개관
1.1 『俱舍論』의 原典	2.1 『解深密經』등 소의경전에 관한 연구
1.2 『俱舍論』의 原典의 研究	2.2 마이뜨레야의 五法
1.3 『俱舍論』과 阿舍經	2.3 아상가의 七論
1.4 『俱舍論』연구를 위한 道具서적	2.4 와수반두의 八論

일본의 구사학·유식학의 연구전통은 상당히 오래돼 에도(江戸)시대 이후의 연구업적만 다룬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분량에 이른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불교학계가 근대적 불교학의 흐름을 흡수하여 불교원전¹⁾연구에 힘쓰기 시작한 19세기말 이후의 연구성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단지 모든 연구논문을 망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브리오그라피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충실한 원전연구로 일본의 불교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저서나 논문만을 소개하고자 한다.²⁾

1) '불교원전'이라 말할 때 대강 다음과 같은 여러 문헌群을 상정할 수 있다.
 (가). 순수한 고전산스크리트어(Classical Sanskrit)로 쓰여진 아비달마(阿毘達磨), 中觀, 唯識, 불교논리학 분야의 논서.
 (나). 佛敎梵語(Buddhist Hybrid Sanskrit)로 쓰여진 대승경전과 佛傳문학.
 (다). 팔리어(Pali) 三藏.
 (라). 티벳대장경, 한역대장경 등 인도의 원전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는 번역문헌.
 이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문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불교학의 한 분야를 학계에서는 '인도불교학'이라 부른다. 구사학·유식학은 이 가운데서 특히 (가), (라)의 영역에 속하는 문헌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阿舍經과 관련된 연구 등에서는 (다)의 팔리어 문헌도 함께 다루고 있다.

1. 일본의 구사학연구 개관

‘俱舍學’이란 『俱舍論』에 관한 연구분야를 말한다. 옛날부터 ‘唯識三年, 俱舍八年’이란 말이 불교의 논서를 공부하는 학인들 사이에 유행하였다. 이 말은 구사론을 8년간 철저히 익혔을 때 유식학을 3년내에 끝낼 수 있다는 의미로 유식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구사론의 연찬이 갖는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유식학 뿐만아니고 中觀이나 불교논리학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도 항상 선행하는 부파불교에 대한 선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구사론을 연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구사학은 ‘불교학의 기초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산스크리트어 원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俱舍論』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玄奘譯에 의존했다. 현장역의 교정본으로는 사에키의 일명 ‘冠導本’이 유명하다.

* 佐伯旭雅 『冠導阿毘達磨俱舍論』 京都, 1896. ; repr. 京都, 1978.

이 교정본의 欄外에 들어있는 풍부한 주석은 교정자의 박학다식함을 엿보게 할 뿐만아니라 아비다르마불교의 전통 속에서 구사론이 갖는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³⁾ 한역에 충실한 일본어 번역으로 기무라 다이켄과 오기하

2) 唯識문헌에 관한 일본의 연구는 東京大學 文學部 印度哲學印度文學研究室에서 편집한 티벳대장경 데르게판중 唯識部(모두 16권)에 텍스트별로 정리돼 있으므로 필자로서는 세세하게 재정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각 권의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는 비브리오그라피를 참조했으면 한다.

The Tibetan Tripitaka, Sde dge edition. Bstan hgyur.—preserved at the Faculty of Letters, University of Tokyo—, compiled and edited by Hayashima, Takasaki, Yamaguchi, Hakamaya, Sems tsam Vols. 1-16, Tokyo: 世界聖典刊行協會, 1979-1981.

이 시리즈의 일환으로 데르게판 阿毘達磨部가 곧 출판될 예정인데 그 중 필자가 작성한 『구사론』에 관한 비브리오그라피가 들어있다.

3) 『俱舍論』에 관한 최초의 세계적인 위업으로 꼽히는 뽕쟁의 구사론 전권의 프랑스어 번역은 한역본의 저본으로 『冠導阿毘達磨俱舍論』을 이용하고 있다. Cf. Louis de La Vallée Poussin, *L'Abhidharmakośa de Vasubandhu, traduction et*

라 운라이의 번역을 들 수 있다.

* 木村泰賢·荻原雲來 『國譯阿毘達磨俱舍論』 『國譯大藏經』論部 Vols. 11-13, 東京, 1920-1921. ; repr. 東京, 1974.

1.1. 『俱舍論』의 原典

1967년에 인도의 브라단(P. Pradhan)이 『俱舍論』의 산스크리트어 교정본⁴⁾을 출판하기 이전에 구사론 원전연구는 야쇼미뜨라(Yaśomitra)의 주석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었다. 오기하라 운라이(荻原雲來)는 寫本에 누락된 일부를 제외한, 야쇼미뜨라의 주석 전체의 산스크리트어 교정본을 출판하였다.

* Wogihara, U.(ed.), *Sphuṭārthā Abhidharmakośavyākhyā by Yaśomitra*, Tokyo, 1932-1936 ; repr. Tokyo: Sankibo Press, 1971.

오기하라는 이 교정본을 토대로 야쇼미뜨라의 주석중 『俱舍論』〈界品〉과 〈根品〉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본어로 번역하였다.

* 荻原雲來 『日本語譯稱友俱舍論疏(一)』 東京, 1933.

* 荻原雲來·山口益 『日本語譯稱友俱舍論疏(二)』 東京, 1934.

* 荻原雲來·山口益 『日本語譯稱友俱舍論疏(三)』 東京, 1939.

오기하라의 교정본은 이제까지 나온 교정본 가운데서 가장 신뢰할 만한 역작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기는 하지만 티벳어 번역과 대조해 볼때 아직도 수정해야 할 곳이 적지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관해서는 후나 하시 잇사이(舟橋一哉)의 지적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annotations, 7 vols, Paris, 1923-1931; rev. Nouvelle édition anastatique présentée par É. Lamotte, *Mélanges Chinois et Bouddhiques*, Vol.16, 6 vols, Bruxelles, 1971.

4) Pradhan, Prahlad (ed.), *Abhidharmakośabhāṣyam of Vasubandhu*, Tibetan Sanskrit Works Series Vol. 8, Patna, 1967. ; rev. 1975.

- * 舟橋一哉 「荻原雲來譯註『日本語譯稱友俱舍論釋疏 1 界品』の改訂試譯」『大谷學報』53-1, 1973. pp.1~20.
- * 舟橋一哉 「阿毘達磨俱舍論隨眠品とその稱友疏との日本語譯 [初めの部分]」『煩惱の研究』東京, 1975. pp.129~147.
- * 舟橋一哉 「優婆塞の五戒について—阿毘達磨俱舍論業品とその稱友疏との日本語譯—」『業思想研究』京都, 1979. pp.265~284.
- * 舟橋一哉 「梵文稱友造『俱舍論疏』隨眠品の缺落箇所について」『佛教學セミナー』44, 1986. pp.1~6.

『俱舍論』의 산스크리트어 교정본이 출간되기 전후의 시기부터 일본에서는 본격적으로 원전연구가 행해진다. 뿌라단의 교정본은 교정자의 역량 부족으로 티벳어 번역과 한역을 참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판본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뿌라단본을 연구에 이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데 뿌라단본의 문헌학적 결함에 관해서는 에지마 야스노리(江島惠教)의 논문을 참조하면 좋겠다.

- * Ejima, Yasunori, 'Textcritical Remarks on the Ninth Chapter of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佛敎文化』20, 1987, pp.1~40.

뿌라단본에 대한 비판의 결과로 에지마는 『俱舍論』의 새 교정본을 만들 것을 학계에 제안하였고 필자를 포함한 여러 학자가 각 품별로 교정본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에지마 본인은 東京大學에 소장된, 뿌라단이 이용했던 것과 똑같은 原寫本을 이용하여 『俱舍論』의 제1장 〈界品〉의 비판적 교정본(Critical edition)을 출판하였고, 제9장 〈破我品〉이 곧 출간될 예정이다.

- * Ejima, Yasunori (ed.), *Abhidharmakośabhāṣya of Vasubandhu —Chap.1. Dhātunirdeśa—*, Bibliotheca Indologica et Buddhologica 1, Tokyo, 1989.

후꾸하라 료곤(福原亮嚴)은 『俱舍論』本頌만을 모아 산스크리트원전과 티벳어 번역, 그리고 한역의 완벽한 판본을 만들고, 그 위에 영어 및 일본어 번역을 덧붙이고 있다.

- * 福原亮嚴 『梵本藏漢英日本語譯合璧·阿毘達磨俱舍論本頌の研究—界品·根品·世間品—』京都, 1973.
- * 福原亮嚴 『梵本藏譯漢譯合璧·阿毘達磨俱舍論本頌の研究—業品·隨眠品—』京都, 1974. ;repr. 京都, 1986.

한편 『俱舍論』을 이용한 특이한 연구사례로 다카하시 소(高橋壯)의 음寫語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이용하여 6, 7세기 중국어의 음운체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제시해 준다.

- * 高橋壯 「佛敎漢語研究—『俱舍論』兩漢譯にみえる音譯語について」資料篇·1, 2—, 『國譯一切經月報·三藏』124·125, 東京, 1976. ;repr. 『三藏集』4, 東京, 1978. pp.1~55.

1.2. 『俱舍論』原典의 研究

『俱舍論』전체에 걸친 원전연구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 뿌셈의 업적을 능가할 만한 연구서는 지금까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각 장별로 부분적인 연구서적이 있으므로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俱舍論』의 제1,2장에 해당하는 〈界品〉과 〈根品〉에 대해서는 사쿠라베 하지메(櫻部建)의 연구성과가 있다.

- * 櫻部建 『俱舍論の研究—界品·根品—』京都, 1969.

사쿠라베는 평소 寡作 스타일의 학자이지만 구사론에 관한 한 大家의 반열에 든다. 이 저서는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의 제1장 「아비달마 구사론의 배경」과 제2장 「구사론 界·根品の 내용」은 아비달마논서가 『俱舍論』으로 집약되는 『俱舍論』前史와 說一切有部の 학설체계를 요령있게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俱舍論』의 교재로 쓰기에 적합하다. 제2부는 뿌라단의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아 일본어 번역을 피한 것이다. 〈界品〉과 〈根品〉은 『俱舍論』전체의 구성면에서 볼 때 총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장에 비해 특히 중요도가 높은 章이다. 사쿠라베의 번역은 티벳어 번역과

한역을 구사하여 뿌라단본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있고 또한 최초의 원전번역이라는 점에서 학적 가치가 높다. 권말에 뿌라단본의 訂正表가 수록되어 있다.

『俱舍論』의 제3장에 해당하는 〈世間品〉의 연구로는 야마구치 스스무와 후나하시 잇사이의 共譯이 있다.

* 山口益·舟橋一哉 『俱舍論の原典解明·世間品』 京都, 1955.

이는 뿌라단본이 출간되기 이전의 저술이긴 하지만 오기하라 운라이의 번역방식을 이어받아 야쇼미뜨라의 주석을 아울러 번역해 냈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갖는다. 『俱舍論』본문은 티벳어 번역으로부터 일본어로 번역하고 야쇼미뜨라의 주석은 오기하라본을 저본으로 했다. 야마구치는 치밀한 문헌학적 연구로 유명한데 〈世間品〉의 번역에 따른 충실한 註記 및 권말에 수록한 오기하라본의 訂正表는 학적 연구의 성과물이다.

『俱舍論』의 제4장에 해당하는 〈業品〉의 연구로는 후나하시 잇사이의 번역이 있다.

* 舟橋一哉 『俱舍論の原典解明·業品』 京都, 1987.

이는 뿌라단본이 출간된 이후의 저술이므로 『俱舍論』본문과 야쇼미뜨라의 주석 모두 산스크리트원전으로부터 번역해냈다. 앞에서 언급한 야마구치와의 공역방식과 동일한 번역방식을 취하고 있다. 註記 가운데 뿌라단본과 오기하라본에 대한 訂正이 행해지고 있다.

『俱舍論』의 제5장에 해당하는 〈隨眠品〉, 제6장에 해당하는 〈賢聖品〉, 제7장에 해당하는 〈智品〉은 아직 전체 번역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몇 편의 중요논문만을 들기로 한다.

〈隨眠品〉에 관해서는 후나하시 잇사이의 연구논문이 있다.

* 舟橋一哉 「梵藏所傳の資料よりする俱舍論隨眠品の註釋的研究 — 特に玄奘譯の本文批判を中心として—」 『山口博士還曆記念·印度學佛教學論叢』, 京都, 1955. pp.145~155.

현장의 한역이 意譯에 치중해 있고 眞諦의 한역이 원전에 충실한 直譯

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학자가 지적하고 있는 바이지만 후나하시도 이 점을 재확인하며 현장의 한역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智品〉에 관해서는 아베 지엔(阿部慈園)의 연구논문이 있는데 뿌라단본을 저본으로 삼고 티벳어 번역과 한역을 대조하여 일본어 번역을 덧붙이고 있다.

* 阿部慈園 「俱舍論智品梵藏漢和對照 1」 『曹洞宗研究員研究生研究紀要』 17, 1986. pp.262~231.

『俱舍論』의 제8장에 해당하는 〈定品〉의 연구로는 코가 에이겐(古賀英彦)의 번역이 있다.

* 古賀英彦 「有部教義學における禪定」 『禪文化研究所紀要』 4, 1972. pp.109~140.

〈賢聖品〉, 〈智品〉, 〈定品〉의 3장은 수행론과 결부되어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역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뽕썩이 『俱舍論』을 프랑스어로 번역할 때 제일 애먹었던 부분이 바로 〈賢聖品〉이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한 한 붓다고사의 『清淨道論』(Visuddhimagga)의 수행론과 비교검토한 후에 번역연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구방법이라 생각된다.

『俱舍論』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破我品〉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俱舍論』의 저자 와수반두는 먼저 제8장까지의 『俱舍論』本頌을 지은 다음 그에 대한 주석을 쓰면서 제9장인 〈破我品〉을 덧붙였다.⁵⁾ 〈破我品〉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독립된 小論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緣起說에 입각한 無我論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와수반두의 無我論을 살펴볼 수 있는 호재로 여겨졌다.⁶⁾ 일본에서 본격적인 〈破我品〉 연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것은 사쿠라베 하지메의 업적이다.

5) 加藤純章 『經量部の研究』 東京, 1989. pp.5~36.

6) Stcherbatsky, Theodore, *The Soul Theory of the Buddhists*, Bulletin de l'Academie des Sciences de Russie Ser.6, Vol.13, No.15, pp.823~854. No.18, pp.937~958, 1920. :repr. Benares, 1970.

* 櫻部建 「破我品の研究」 『大谷大學研究年報』12, 1959. pp.21~112.

이 연구논문은 브라단본이 출간되기 이전에 쓰여진 것이므로 티벳어 번역을 저본으로 삼아 일본어 번역을 피한 것이다. 논문 초두에 이전의 구사론 연구에 관한 비브리오그래피가 있고 또한 티벳어 번역으로만 남아있는 중요한 구사론의 주석서에 대한 소개가 실려있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한편 후나하시 잇사이는 야쇼미뜨라의 주석을 원전번역하고 오기하라본을 수정하고 있다.

* 舟橋一哉 「稱友造阿毘達磨俱舍論明瞭義釋破我品 — 梵文の日本語譯と註と梵文テキストの正誤訂正表 —」 『大谷大學研究年報』15, 1962. pp.3~61.

『俱舍論』에 관련된 중요한 연구테마의 하나로 『俱舍論』의 저자 외수반두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가졌을 經量部の 원형을 복구시키는 작업을 들 수 있다. 가토 준쇼(加藤純章)는 이 분야의 최고의 大家로 손꼽힌다. 가토는 『俱舍論』에 대해 설일체유부의 입장에서 논박한 衆賢(Samghabhadra)의 『阿毘達磨順正理論』에서 '上座'라는 칭호로 언급되는 인물이 經量부의 시조 쉬리라따(Śrīlata)임을 논증하고 쉬리라따의 사상적 입장을 치밀하게 재구성하였다. 經量부 연구에 큰 획을 그은 작업으로 평가받는다. 15년을 넘는 작업을 묶어 책 한 권으로 출간했다.

* 加藤純章 『經量部の研究』 東京, 1989.

1.3. 『俱舍論』과 阿舍經

『俱舍論』의 주석서 가운데는 티벳어 번역으로만 남아있는 저술이 몇 편 있다. 그 중 샤마타데와(Samathadeva)의 『우빠이까』(Upāyikā)는 『俱舍論』 가운데 일부분만 인용된 아함경의 全文을 수록하고 있어 설일체유부에 전래돼온 아함경을 복원하기 위한 절호의 자료이다. 사쿠라베 하지메는 일찍부터 그 중요성을 학계에 환기시킨 대표적인 학자이다.

* 櫻部建 「シャマタデーヴァの依用する中阿舍について」 『山口博士還曆記念・印

度學佛教學論叢』 京都, 1955. pp.156~161.

* 櫻部建 「シャマタデーヴァの俱舍論註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4-2, 1956. pp.155~156.

사쿠라베의 작업을 이어받아 『俱舍論』 전체에 걸쳐 인용경전을 조사하여 그 전문을 사마타데와의 『우빠이까』로부터 복원하는데 힘쓴 학자로 혼쵸 요시부미(本庄良文)가 있다. 10년여에 걸쳐 20편에 이르는 논문을 발표하며 혼쵸는 『우빠이까』에서 복원한 아함경 전문을 분류하여 차례로 일본어로 번역하였다. 그 성과는 우선 책 한 권으로 모아졌다.

* 本庄良文 『俱舍論所依阿舍全表』 京都, 1984.

권두에 자신의 논문 출처를 명시해냈다. 이후의 논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本庄良文 「阿舍と俱舍論—界品(1)—」 『密教學』20-21, 1985. pp.(27)~(40).

* 本庄良文 「阿舍と俱舍論—界品(2)—」 『南都佛教』54, 1985. pp.(1)~(17).

* 本庄良文 「ウパーイカー所傳の長阿舍」 『印度學佛教學研究』 33-2, 1985. pp.(87)~(91).

* 本庄良文 「シャマタデーヴァの傳える中·相應阿舍」 『佛教研究』 16, 1986. pp.63~80.

* 本庄良文 「シャマタデーヴァの傳える律典」 『佛教研究』 17, 1987. pp.123~134.

* 本庄良文 「シャマタデーヴァの傳える阿舍資料—賢聖品(1)—」 『三康文化研究所年報』21, 1988. pp.1~29.

* 本庄良文 「シャマタデーヴァの傳える阿舍資料—賢聖品(2)—」 『佛教研究』 19, 1990. pp.161~179.

* 本庄良文 「シャマタデーヴァの傳える阿舍資料—賢聖品(3)—」 『教育諸學研究論文集』 4, 1990. pp.41~59.

* 本庄良文 「阿舍と俱舍論—界品(3)—」 『佛教研究』20, 1991. pp.107~123.

혼쵸 이외에도 후지타 고타츠(藤田宏達)의 연구성과를 들 수 있다.

* 藤田宏達 『〈俱舍論〉所引の阿舍經一覽』 北海道, 1984.

1.4. 『俱舍論』연구를 위한 道具서적

『俱舍論』원전연구를 위해 가장 유용한 도구서적은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등 여러 학자가 편집한 『俱舍論索引』이다. 이 색인집은 뿌라단본 1판을 저본으로 삼아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티벳어번역, 한역을 실고 있어 후학의 연구편의에 기여하는 바 크다. 전체 3부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은 梵·藏·漢 대조, 제2권은 漢·梵 대조, 제 3권은 藏·梵 대조편이다. 권말에 뿌라단본의 訂正表가 실려있어 유익하다.

* Hirakawa, Akira et al., *Index to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P. Pradhan edition), 3 parts, Tokyo: the Daizo Shuppan Ltd., 1973-1977.

2. 일본의 유식학 연구 개관

唯識思想은 『解深密經』과 『瑜伽師地論』을 소의경론으로 삼아 전개된 사상체계이다. 마이뜨레야(Maitreya 彌勒)의 저작으로 전해내려오는 『大乘莊嚴經論』과 『中邊分別論』, 아상가(Asaṅga 無着)의 『攝大乘論』을 거쳐 와수반두(Vasubandhu 世親/天親)의 『唯識二十論』과 『唯識三十頌』에 이르러 완벽한 사상체계가 갖춰졌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法相宗의 흐름을 이어받아 다르마팔라(Dharmapala 護法)의 『成唯識論』(玄奘譯)과 慈恩大師 基의 『成唯識論述記』를 중심으로 유식사상을 이해하였다. 하지만 유식사상은 어느 한 종파의 테두리안에 머물 수 없는 종합적인 사상체계이므로, 원전연구에 입각한 근대적 불교학이 대두된 이후, 일본의 불교학계는 현장이 전한 다르마팔라 위주의 전통적인 법상종의 체계를 탈피하여 마이뜨레야, 아상가, 와수반

두 등의 초기유식사상을 직접 해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유식사상을 연구함에 있어 제일 먼저 부딪치는 난점은 방대한 논서의 양과 사상내용면에서 다양한 논서들 가운데 보이는 사상적 불일치이다. 이로 인해 유식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瑜伽行派의 형성과정이나 각 논서의 저자를 확정하는 문제, 그리고 저자의 생존연대 문제 및 학설의 규명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문제가 산적해 있는 형편이다.

바로 이와 같은 난점때문에 일본의 유식학자들은 처음부터 어떤 체계를 상정하여 연역적으로 개별자료를 섭렵하는 전체적인 연구방식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느 한 텍스트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조망은 나중에 하는 분석적 연구방식을 택해 왔다. 이 점이 일본의 유식 연구경향으로 거론될 수 있는 특색인데 이러한 연구 경향은 자연스럽게 일본 불교학계의 문헌학적 풍토와 맞물려 상당히 치밀한 개별연구로 흘러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초기유식사상을 중심으로 각 논서에 관한 중요한 원전연구 성과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초기 유식사상을 다룬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스구로 신조(勝呂信靜)의 연구서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유식사상 연구경향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 勝呂信靜 『初期唯識思想の研究』 東京, 1989.

2.1. 『解深密經』 등 소의경전에 관한 연구

유식사상이 의거하고 있는 소의경전으로 자은대사 基는 『成唯識論述記』에서 소위 ‘六經’을 거론한다. (1) 『華嚴經』 (2) 『解深密經』 (3) 『如來出現功德經』 (4) 『阿毘達磨經』 (5) 『楞伽經』 (6) 『厚嚴經』이 그것이다. 이 중 (1)(2)(5) 세 경전이 유식논서중에 자주 인용되는 특히 중요한 경전이다.

(1) 『華嚴經』중 〈十地品〉과 〈入法界品〉의 산스크리트어 교정본이 있다.

* *Daśabhūmiśvaro nāma Mahāyānasūtram*, rev. and ed. by Ryūko

Kondō, Tokyo, 1936.

* *The Gaṇḍavyūha Sūtra*, ed. by D.T. Suzuki and H. Idzumi, 4 Vols. Kyoto, 1934-36. rep. 1949.

〈十地品〉은 『十地經』으로도 불리우는 독립된 경전인데, 아라마키 노리 토시(荒牧典俊)가 이를 산스크리트어 원전으로부터 현대 일본어로 번역하였다.

* 荒牧典俊 『大乘佛典 8·十地經』東京, 1974. rev. 1980.

(2) 『解深密經』에 관해서는 후카우라 마사후미(深浦正文)의 일어번역과 脚註가 『國譯一切經, 經集部 三』(大東出版社, 1933)에 실려있다.

『해심밀경』에 대한 아상가의 주석이 티벳대장경에 남아있는데 니시오(西尾京雅)는 『佛地經論之研究』(京都, 1940, pp.36~42)에서 그 가운데 제 1장 序品을 일어로 번역했다.

아상가의 주석 이외에도 티벳대장경에는 즈나나가르바(Jñānagarbha)의 주석과 장츄주틀(Byaṅ chub rdsu hphrul)의 주석이 남아있는데, 이 중 分別瑜伽品에 해당하는 부분이 노자와 죠쇼(野澤靜澄)의 『大乘佛教瑜伽行の研究』(法藏館, 1958)에 일어로 번역되어 있다.

한편 신라 원측(圓測 A.D. 614-98)의 『解深密經疏』가 한문에서 티벳어로 번역돼 티벳대장경(D. 4016)에 실려 있어 원측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자료가 된다. 원측소에 관한 연구로 이나바 쇼쥬(稻葉正就)의 논문이 있다.

* 稻葉正就 「解深密經疏のチベット語譯について」 『大谷學報』56-2, 1976.

해심밀경에 관한 해설 및 연구로는 우이 하쿠쥬(宇井伯壽)의 『攝大乘論研究』(岩波書店, 1935, 57ff), 우에다 요시후미(上田義文)의 “深密解脫經と解深密經”(『大乘佛教の根本構造』, 百華苑, 1957)를 들 수 있다.

(5) 『楞伽經』에 관해서는 난조 분유(南條文雄)의 산스크리트어 교정본이 있고, 난조분을 저본으로 한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의 영역 및 색인집이 있다.

* *Laṅkāvatāra Sūtra*, ed. by Bunyu Nanjio, Bibliotheca Otaniensis, Vol. 1, Kyoto, 1923.

* D.T. Suzuki, *Laṅkāvatāra-sūtra, A Mahāyāna Text*, London, 1932. rev. 1956.

* D.T. Suzuki, *An Index to the Laṅkāvatāra Sūtra with the Chinese and Tibentan Equivalents*, Kyoto, 1933.

2.2. 마이뜨레야(Maitreya/Maitreyanatha, A.D.270-350)의 五法⁷⁾

마이뜨레야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인물이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직 학계에 통일된 합의는 없다. 실재한 인물이었다는 학설은 우이 하쿠쥬의 “史的人物としての彌勒及び無着の著述”(『印度哲學研究 第一』, 岩波書店, rep. 1965)을 효시로 삼는다. 이에 반해 야마구치 스스무(山口益)의 『安慧阿遮梨耶造中邊分別論釋疏』(東京, 1935, rep. 東京:鈴木學術財團, 1966, 29ff)는 마이뜨레야가 역사적으로 실재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글이다.

2.2.1. 『大乘莊嚴經論』(Mahāyānasūtrālamkāra)

『大乘莊嚴經論』은 대승경전을 장엄하는 문학적 방식을 통해 대승의 유식사상을 천명하려는 체계적인 논서이다. 본頌과 외수반두의 주석이 산스크리트어로 남아 있다.

프랑스의 레위(Sylvain Lévi)에 의해 산스크리트원본이 교정되었는데,⁸⁾

7) 초기 유식논서의 저자에 관해서는 티벳과 중국의 전승이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티벳의 저명한 學僧 뿌풍(Bu ston Rin chen grub, A.D.1290-1364)의 견해를 좇아 마이뜨레야 및 아상가, 외수반두의 저술을 잠정적으로 설정하겠다.

* *The Collected Works of Bu-ston*, Pt.24. ed. by Lokesh Chandra, Śāta-pitaka Series, Vol.64. Delhi, 1971.

* E. Obermiller (E. Tr.), *History of Buddhism (Chos Hbyung) by Bu-ston*, Vol. 1-2, Heidelberg, 1931-2; rep. Tokyo, 1961.

8) Lévi, Sylvain (ed.): *Asaṅga, Mahāyānasūtrālamkāra, Exposé de la Doctrine du Grand Véhicule selon le Système Yogacāra. Tome 1 : Texte : Tome*

레위본에 대해 나가오 가진(長尾雅人)은 수정을 덧붙여 색인집을 만들었는데, 이 색인집은 그 문헌학적 구성의 엄밀성 때문에 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 Gadjin M. Nagao, *Index to the Mahāyānasūtrālamkāra*. Part one: Sanskrit-Tibetan-Chinese ; Part two: Tibetan-Sanskrit & Chinese-Sanskrit. Tokyo : Nippon Gakujutsu Shinkō-kai, 1958-61.

전체의 일본어 번역 및 연구로 우이 하쿠슈의 『大乘莊嚴經論』(東京, 1961)이 있다. 최근에 일본의 대표적인 유식학자인 하카마야 노리아키(袴谷憲昭)가 자세한 註記를 곁들인 번역집을 내놓았다.

* 袴谷憲昭·荒井裕明 校註 『大乘莊嚴經論』新國譯大藏經 瑜伽唯識部 12, 東京, 1993.

2.2.2. 『中邊分別論』(Madhyāntavibhāga)

有無의 兩邊을 떠난 ‘中(madhya)’ 즉 般若經의 空사상을 유식사상의 입장에서 해명한 논서이다. 本頌, 와수반두의 주석, 스티라마띠의 復註가 산스크리트어로 남아 있다.

나가오 가진(長尾雅人)은 頌과 와수반두의 주석의 산스크리트어 교정본을 만들었으며, 그 이전에 야마구치 스스무(山口益)는 스티라마띠의 복주의 산스크리트어 교정본을 만들었다. 특히 야마구치 판본은 原寫本에 결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티벳어번역으로부터 그 결손부분을 보충하여 산스크리트어로 환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때문에 연구자료로 다룰 때 주의를 요한다.

* Nagao, G. (ed.), *Madhyāntavibhāga-bhāṣya*. A Buddhist philosophical Treatise edited for the first time from a Sanskrit Manuscript. Tokyo: Suzuki Foundation, 1964.

* Yamaguchi, S. (ed.), *Sthiramati, Madhyāntavibhāgātikā—Exposition systématique du Yogācāravijñaptivāda* —, Nagoya, 1934. repr. Tokyo. 1966.

야마구치는 漢譯으로 남아있는 眞諦譯 『中邊分別論』과 玄奘譯 『辯中邊論』, 그리고 티벳어번역을 비교대조하여

* 山口益 『漢藏對照辯中邊論』京都, 1937.

을 펴냈으며, 스티라마띠의 복주를 일본어로 번역하였다.

* 山口益 『中邊分別論釋疏』東京, 1966.

나가오는 전체 5章 가운데 먼저 제1장과 제3장의 本頌과 와수반두의 주석부분을 평이한 일본어로 번역하였다가 나중에 5장전체의 일본어번역을 제시하였다.

* 長尾雅人 「中正と兩極端との辨別」 『世界の名著2·大乘佛典』東京, 1967.

* 長尾雅人 「中邊分別論」 『大乘佛典15·世親論集』東京, 1976.

2.2.3. 『法法性分別論』(Dharmadharmatāvibhāga)

法(dharma)과 法性(dharmatā)의 관계를 다룬 짚막한 논서로 法에서 法性으로 질적 비약을 하는 轉依(āśrayaparivṛtti) 문제를 중심과제로 다룬다.

산스크리트어사본의 단편에 관한 보고가 야마구치의 논문에 소개되어 있고,

* 山口益 「法法性分別論の梵文斷片」 『大谷學報』17, 1933. pp.558~563. rep. 『山口益佛教學文集·上』東京, 1972. pp.201~211.

노자와 조쇼(野澤靜證)는 이 단편의 교정본을 제시하였다.

* Nozawa, J. (ed.), 'The Dharmadharmatāvibhāga and the Dharmadharmatāvibhāga-vṛtti', 『山口博士還曆記念·印度學佛教學論叢』京

都, 1955. pp.9~49.

『法性分別論』전체의 본頌과 와수반두의 주석에 대한 일본어번역으로 야마구치의 연구업적이 있다.

* 山口益 『彌勒造(法性分別論)管見』 『常盤博士還曆記念佛教論叢』 京都, 1933.

나중에 야마구치는 이 논문을 수정보완하였다.

* 山口益 『彌勒造法性分別論の譯註』 『山口益佛教學文集·上』, 東京, 1972, pp.163~200.

2.2.4. 『現觀莊嚴論』(Abhisamayālamkāra)

유식사상의 입장에서 『二萬五千頌般若經』을 수행의 단계에 따라 풀이한 논서로, 후에는 반야경 일반에 관한 주석서의 모델이 되었다.

산스크리트어 교정본 및 티벳어번역이 1920년대에 출판되었는데,⁹⁾ 하리바드라(Haribhadra)의 주석 『現觀莊嚴光明』(Abhisamayālamkāralokā)에 대한 산스크리트어 교정본으로 오기하라 운라이(荻原雲來)의 업적이 있다.

* Wogihara, U.(ed.), *Abhisamayālamkāralokā Prajñāpāramitāvyaḥyā (Commentary on Aṣṭasāhasrikāprajñāpāramitā), the work of Haribhadra*, Tokyo: The Toyo Bunko, 1932-35.

2.2.5. 기타

이 이외에 티벳의 전승은 『究竟一乘寶性論』(Ratnagotravibhāga / Uttaratantra)을 마이뜨레야의 五法 속에 포함시키지만 이 논서는 如來藏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9) E. Obermiller and Th. Stcherbatsky, *Abhisamayālamkāra, the Works of Bodhisattva Maitreya*, Introduction, Sanskrit Text and Tibetan translation (Bibliotheca Buddhica 23), Leningrad, 1929.

한편 중국의 전승은 『瑜伽師地論』, 『分別瑜伽論』(Yogavibhāga ?)(未譯), 『大乘莊嚴經論』, 『中邊分別論』, 『金剛般若經論』을 마이뜨레야의 저서로 치고 있는데 이 중 『金剛般若經論』은 유식사상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역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2.3. 아상가(Asaṅga, A.D.310-390)의 七論

2.3.1. 『瑜伽師地論』(Yogācārabhūmi)

『瑜伽師地論』은 유가행을 17단계로 나누어 해설한 「本地分」에 「攝決擇分」 「攝事分」 「攝異門分」 「攝釋分」 등의 四部를 더한 논서로 티벳의 전승에 의하면 이 五部는 각각 독립적인 작품으로 모두 아상가가 그 저자이다. 현장역으로 100권에 이르는 방대한 논서로 瑜伽行派의 사상적 원천이다. 티벳의 전승에 따르면 아상가가, 중국의 전승에 따르면 마이뜨레야가 이 논서를 지었다고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저서라고 보기보다는 집단적인 편찬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本地分」 가운데 〈菩薩地〉는 단독 경전으로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한역대장경에 남아있는 曇無讖譯 『菩薩地持經』, 求那跋摩譯 『菩薩善戒經』이 그 좋은 예에 속한다. 『瑜伽師地論』전체의 산스크리트어 원전은 없지만 〈聲聞地〉 〈菩薩地〉 등 「本地分」의 상당부분이 산스크리트어 원문으로 회수돼 있다.

오기하라 운라이(荻原雲來)는 〈보살지〉의 산스크리트어 교정본을 출간하였다.

* Wogihara, U.(ed.), *Bodhisattvabhūmi, A Statement of Whole Course of the Bodhisattva*, 2 vols., Tokyo, 1930-36.

『瑜伽師地論』전체에 관한 연구로는 우이 하쿠쥬의 저서가 있다.

* 宇井伯壽 『瑜伽論研究』 東京, 1958.

또한 우이 하쿠쥬의 〈보살지〉 색인집은 유용한 도구서적이다.

* 宇井伯壽 『梵漢對照菩薩地索引』 東京, 西藏大藏經研究會, 1961.

한편 무카이 아키라(向井 亮)의 특이한 논문은 설일체유부의 아함경 복원에 『瑜伽師地論』이 활용될 수 있다는 좋은 실례가 된다.

* 向井 亮 「『瑜伽師地論』攝事分と『雜阿含經』」 『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33-2, (附 『瑜伽師地論』攝事分—『雜阿含經』對應關係一覽表), 1984, pp.1~41.

2.3.2. 『阿毘達磨集論』(Abhidharmasamuccaya)

아비다르마불교에서 다룬 法(dharma)의 체계를 유식사상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논서로 '유식적 아비다르마논서'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한 산스크리트어 원전은 남아 있지 않으나 상당부분이 산스크리트어로 회수돼 있다. 일본에서는 하카마야 노리아키(袴谷憲昭)와 후나하시 나오야(舟橋尙哉) 등의 부분적인 연구 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袴谷憲昭 「Asaṅgaの聖典觀—Abhidharmasamuccayaのdharmaviniścaya章について—」 『曹洞宗研究員研究生研究紀要』 4, 1972. pp.(15)~(30)

2.3.3. 『攝大乘論』(Mahāyānasamgraha)

유식사상을 집대성한 저작으로 옛날부터 유식학을 배우는 학인들 사이에서 특히 중시되었다. 중국에서는 『攝大乘論』(眞諦譯)에 의거해 攝論宗이 형성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저서이다. 유식설에 근거한 보살의 수행단계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알라야식(alayavijñāna)과 三性說이 융합돼 있는 점은 『攝大乘論』의 특징이기도 해 일찍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산스크리트어 원전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티벳어 번역에 의존해서 원문을 복원하는 수 밖에 없다.

사사키 겐쇼(佐佐木月樵)는 佛陀扇多, 眞諦, 玄奘의 한역과 다르마굽타(Dharmagupta) 등의 한역을 합친 네 종류의 한역을 대조하여 출판하였고 여기에 야마구치 스스무가 교정을 본 티벳어 번역을 덧붙였다. 산스크

리트어 원본이 발굴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대단히 유익한 기초서적이다.

* 佐佐木月樵 『漢譯四本對照 攝大乘論: 附 西藏譯攝大乘論』 1931, rep. 東京, 日本佛書刊行會, 1959.

『攝大乘論』 전체에 대한 연구서로 우이 하쿠쥬의 업적이 있는데 이는 眞諦譯을 산스크리트어 원문에 충실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 宇井伯壽 『攝大乘論研究』 東京, 1935.

한편 와수반두의 저작으로 전해내려오는 텍스트 가운데 『攝大乘論』에 대한 주석서 『攝大乘論釋』이 있는데 나가오 가진은 이를 부분적으로(현장역으로 보면 總標綱要分) 산스크리트어로 환원하였다.

* 長尾雅人 「攝大乘論世親釋の漢藏本對照」 『東方學報』 13-2, 京都, 1943.

나가오 가진 이외에 『攝大乘論』의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재구성하려고 피한 학자로 아라마키 노리토시(荒牧典俊)를 들 수 있다.

* 荒牧典俊 「攝大乘論の依他起性」 『インド學試論集』 4-5, 京都, 1963.

* 荒牧典俊 「攝大乘論の序章」 『インド學試論集』 6-7, 京都, 1965.

『攝大乘論』 전체를 일본어로 번역한 역작에 나가오 가진의 학적 성과가 있다. 이 작품은 티벳어 번역을 底本으로 삼아 여러 한역을 참조하여 번역한 것인데, 상단에 玄奘譯과 그에 대한 일본식 독법을 아울러 제시했으며 단락별로 중요한 술어에 대해서 산스크리트어로 환원을 피하는 등 『攝大乘論』에 관한 최고의 연구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上卷 말미에 『攝大乘論』의 序章, 제1장, 제2장의 티벳어 번역 교정본과 환원梵文이 실려 있고, 下卷 말미에 제3장에서 제10장까지의 티벳어 번역 교정본과 『攝大乘論』 전체의 梵漢索引 및 漢梵索引이 실려있어 후학의 편의에 기여하는 바 크다.

* 長尾雅人 『攝大乘論 和譯と注解』(上,下), インド古典叢書, 東京, 1982-1987.

2.4. 와수반두(Vasubandhu, A.D.320-400 ?)의 八論

와수반두의 생존연대의 규명은 와수반두 이후에 활약했던 여러 논자들의 생존연대와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찌기 195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후라우와르너(E. Frauwallner)는 중국에 전승돼 온 여러 자료들 가운데 보이는 기술의 불일치에 주목하여 유명한 “세친2인설”을 제시하였다.¹⁰⁾ “세친2인설”이란 간략하게 말하면 『구사론』의 저자 新와수반두(A.D. 400-480)와 마이뜨레야作으로 전해 내려오는 여러 저서에 대해 주석을 단 舊와수반두(A.D. 320-380)를 별개의 인물로 보는 학설이다. 후라우와르너의 애제자인 독일의 슈미트하우젠(L. Schmithausen)은 후라우와르너의 학설을 보강하여 『구사론』의 저자 新와수반두의 저술목록에 『유식이십론』 『유식삼십송』을 할당시키지만, 『중변분별론송석』등 마이뜨레야의 저작에 대한 주석류는 여전히 舊와수반두에 할당시킨다.¹¹⁾ 이같은 “세친2인설”에 대해 일본 학계의 반응은 어느 쪽이나 하면 심정적으로는 “세친일인설”에 동조하여 세친2인설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세친2인설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와수반두에 관한 최근의 주된 연구경향은 안전한 길을 택하자는 조류로 인해 『구사론』의 저자 와수반두를 기점으로 삼아 구사론의 저자 와수반두의 저작이라 판정할 수 있는 유식서적을 확보하는 경로를 택하고 있다.

“세친일인설”의 입장에서 세친의 연대를 규명하고 있는 주요한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괄호속은 세친의 생존연대)

* Takakusu, J., A Study of Paramārtha's Life of Vasubandhu

10) E. Frauwallner, *On the date of the buddhist master of Law Vasubandhu*, Serie Orientale Roma III, IsMeo, Roma, 1951.

11) L. Schmithausen, "Sautrāntika-Voraussetzungen in Vimśatika and Trīmśikā", Wiener Zeitschrift für Kunde Süd-und Ostasiens 11, 1967, pp.109~136.

and the date of Vasubandhu, JRAS, 1905, pp.33~53. (A.D.420-500)

* 宇井伯壽 『インド哲學史』 東京, 1929, p.387. (A.D.320-400)

* 櫻部 建 「フラウワルナー氏の世親年代論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1-1, 1952, pp.202~8. (후라우와르너의 견해에 대한 반론. 명확한 연대제시가 없음)

* 干瀉龍祥 「世親年代考」 『宮本正尊教授還曆記念論文集 印度學佛教學論集』, 1954, p.306~323. (A.D.400-480)

2.4.1. 『釋軌論』(Vyākhyāyukti)

大乘의 가르침이 佛說이 아니라는 소위 소승측의 “대승비불설론”에 대해 이를 체계적으로 비판하며 유식사상의 관점에서 종래의 아함경을 포함한 대승경전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경전의 해석학적 규범을 제시한 특이한 텍스트로 아함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산스크리트어 원본도 남아있지 않고 한역도 없기 때문에 티벳어 번역에만 의지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釋軌論』에 관해서는 야마구치 스스무의 선구적 업적이 있다.

* 山口益 「世親の釋軌論について—かりそめな解題というほどのもの—」 『日本佛教學會年報』 1959, rep. 『山口益佛教學文集·下』 東京, 1973, pp.151~188.

* 山口益 「大乘非佛說論に對する世親の論破—釋軌論第四章に對する—解題」 『東方學論集』 1962, rep. 『山口益佛教學文集·下』 東京, 1973, pp.299~320.

두 편의 논문 모두 해제에 그친 불완전한 감이 있지만 서구의 학계에서도 전혀 연구되지 않았던 난해한 서적을 나름대로 대강의 줄거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야마구치 이후에 나타난 대표적인 논문으로 일본의 대표적 젊은 연구자인 마츠다 가즈노부(松田和信)의 논문을 들 수 있다.

* 松田和信 「教説と意味—釋軌論第四章より—」 『大谷學報』63-2, 1983, pp.79~

80.

* 松田和信 「Vyākhyāyuktiの二諦說—Vasubandhu研究ノート(2)—」 『印度學佛教學研究』33-2, 1985. pp.(114)~(120).

그 이외에 혼조 요시부미(本庄良文)의 부분번역이 있다.

* 本庄良文 「『釋軌論』第四章—世親の大乗佛說論(上)—」 『神戸女子大學紀要』23-1, 1990. pp.57~70.

2.4.2. 『成業論』(Karmasiddhi)

『成業論』은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業說을 비판하고 유식사상에 입각한 업론을 정립한 텍스트로 와수반두의 업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없고 티벳어 번역과 한역만 있다. 라못뜨(É. Lamotte)의 티벳어 번역 교정본과 프랑스어 번역이 학문적 성과로 인정받아 연구자의 저본으로 활용되고 있다.¹²⁾ 야마구치 스스무(山口益)는 라못뜨의 연구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한 단계 더 나아가 티벳어 번역으로만 남아있는 쉐마띠실라(Sumatisīla)의 주석을 아울러 일본어로 번역하였다. 일본에서 『成業論』에 관한 연구는 야마구치에 의해 그 기초가 확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야마구치의 업적은 『成業論』연구의 초석이 됐다. 『成業論』을 經量部に 속하는 작품으로 파악하는 라못뜨의 견해에 대해 야마구치는 명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의구심을 안고 異意를 제기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 山口益 『世親の成業論』京都, 1962. rep. 1975.

한편 무로지 기진(室寺義人)은 『成業論』 티벳어 번역의 비판적 교정본(Critical edition)을 私家版 형태로 제시하여 관계학자들의 연구 편의를 꾀하였다. 무로지의 연구는 문헌학적인 연구방법의 전형적인 모범사례로

12) Lamotte, Étienne (ed.), 'Le Traité de l'Acte de Vasubandhu. Karmasiddhi-prakarana', *Mélanges Chinois et Bouddhiques*, Vol. 4, 1936. pp.152~263.

평가받을 만한데 『구사론』, 『緣起經釋』에서 『成業論』과 관련된 기술을 추려내어 같이 수록함으로써 와수반두의 다른 저작들과 연계관계 속에서 『成業論』을 이해하려는 새로운 연구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 Muroji, Gijin (ed.), *The Tibetan Text of the Karmasiddhiprakaraṇa of Vasubandhu — with reference to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and the Pratītyasamutpādayākyā—*, Critically edited from the Cone, Derge, Narthang and Peking Editions of the Tibetan Tanjur, Kyoto, 1985.

2.4.3. 『緣起經釋』(Pratītyasamutpāda-vyākhyā)

와수반두의 『緣起經』에 대한 주석으로 유식사상에 입각한 와수반두의 '緣起觀'이 집약적으로 잘 들어나있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논서이다. 산스크리트어 단편이 부분적으로 회수돼 있고, 일본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마즈다 카즈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松田和信 「世親『緣起經釋(PSVy)』におけるアーラヤ識の定義」 『印度學佛教學研究』31-1, 1982, pp.420~423.

* 松田和信 「分別緣起初勝法門經—經量部世親の緣起說—」 『佛教學セミナー』36, 1982, pp.40~70.

* 松田和信 「Vasubandhu 研究ノート(1)」 『印度學佛教學研究』32-2, 1984, pp.(82)~(85).

* 松田和信 「『成唯識論』の傳える世親『緣起論』」 『印度學佛教學研究』35-1, 1985, pp.(11)~(114).

2.4.4. 『唯識二十論』(Viṃśatikā-vṛtti)

『唯識二十論』은 외부의 객관적 존재가 우리의 인식대상이라는 외계실재론에 근거한 여러 학설을 비판하여 '唯識無境'의 의의를 천명한 小論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 * (1) 佐佐木月樵 『唯識二十論の對譯研究』 京都, 1933.
- * (2) 宇井伯壽 『四譯對照唯識二十論研究』 東京, 1953.
- * (3) 山口益 「唯識二十論の原典解釋」 『世親唯識の原典解明』 京都, 1963.

사사키의 연구(1)은 瞿曇般若流支譯 『唯識論』, 眞諦譯 『大乘唯識論』, 玄奘譯 『唯識二十論』과 티벳어 번역을 대조 연구한 것이다. 우이의 연구(2)는 프랑스의 레위가 교정을 본 산스크리트어 교정본¹³⁾에 의거해 이상의 여러 번역을 참조하여 각각의 번역본을 제각기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권말에 산스크리트어 색인집이 붙어있고 레위본의 訂正表가 덧붙여져 있어 원문연구에 一助를 더한다. 야마구치의 연구(3)은 티벳어 번역으로만 남아있는 위니따데와(Vinitadeva)의 復註를 일본어로 완역하여 그 토대위에서 와수반두의 自註를 이해하는 방식을 채택한, 학적 가치가 탁월한 역작이다. 우이(2)의 시도도 결국은 중국의 法相宗의 테두리안에서 유식사상을 조명하려는 기존의 학문풍토에 대한 이의제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야마구치의 업적(3)은 우이와 비슷한 발상 아래 법상종의 시각에서 벗어난 현대적 불교학의 유식사상연구의 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불교학계의 위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적인 일본어 번역으로 가지야마 유이치(梶山雄一)의 번역을 들 수 있다.

- * 梶山雄一 「二十詩篇の唯識論(唯識二十論)」 『世界の名著2・大乘佛典』 東京, 1967.
- * 梶山雄一 「唯識二十論」 『大乘佛典 15 世親論集』 東京, 1976.

2.4.5. 『唯識三十頌』(Triṃśikā-kārikā)

와수반두의 말년 최후의 저서로 전통적으로 유식학파의 강요서 역할을 해왔다. 『唯識二十論』이 破邪의 입장에서 주로 타학파의 이론체계의 허점

13) Lévi, Sylvain (ed.), *Vijñaptimātratā, Deux traités de Vasubandhu, Vimśatikā (la Vingtaine) accompagnée d'une explication en prose, et Triṃśikā (la Trentaine) avec le commentaire de Sthiramati*, Bibliothèque de l'École des Hautes Études, Librairie Honoré Champion, Paris, 1925.

을 지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식사상을 천명했다고 한다면 『唯識三十頌』은 顯正의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유식의 大義를 짚막한 시 속에 응축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레위본에 스티라마띠의 주석과 함께 산스크리트어 교정본이 들어 있으므로 이후의 연구는 레위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 * (1) 宇井伯壽 『安慧・護法唯識三十頌釋論』 東京, 1952. rep. 東京, 1979.
- * (2) 野澤靜證 「唯識三十頌の原典解釋」 『世親唯識の原典解明』 京都, 1963.

우이의 연구(1)은 스티라마띠의 주석 『唯識三十頌釋』을 일본어로 완역하고, 그에 덧붙여 중국 法相宗의 성전인 『成唯識論』에서 다르마팔라(Dharmapala 護法)의 주석에 해당하는 곳을 취의선택하여 번역한 것으로, 스티라마띠와 다르마팔라의 해석상의 상이점을 연구하고자 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권말에 수록되어 있는 우에다 요시후미(上田義文)의 비판적 해설과 대비시키면서 우이의 해석방식의 문제점을 더불어 인식할 때 난해한 유식사상에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을 얻게 되리라고 본다. 권말에는 또한 레위본의 訂正表가 실려있어 산스크리트어 원본연구에 도움을 준다. 노자와의 연구(2)는 『唯識二十論』에 대한 야마구치의 연구와 동일한 연구방법을 취해 스티라마띠의 주석에 대한 위니따데와의 復註를 일본어로 완역한 것이다. 유식사상에 한한 현상은 아니지만 한역만으로는 미진한 철학적 논서의 이해에 있어서 산스크리트어 원본과 더불어 티벳대장경에 남아있는 여러 주석서를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 연구 추세이기 때문에 노자와의 연구업적은 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成唯識論』은 와수반두의 『唯識三十頌』에 대한 소위 유식10대논사의 주석을 소개하여 그 중 다르마팔라의 해석을 정통으로 삼아 유식의 奧義를 천명한 논서로 慈恩大師 基의 『成唯識論述記』와 더불어 옛날부터 법상종의 주된 텍스트로 이용되었다. 일본에서는 『成唯識論』의 텍스트로 사에키가 만든 교정본을 사용하는데 이는 행간에 일본식의 독법이 들어있고 또한 欄外에 전통적인 해석을 담은 상세한 주석이 달려 있어 『成唯識論』 연구에 기여하는 바 크다.¹⁴⁾

* 佐伯定胤校訂 『新導成唯識論』 奈良, 法隆寺, 1940.

스티라마띠의 주석과 함께 와수반두의 本頌을 현대적인 일본어로 번역한 작업으로 아라마키의 번역을 들 수 있다.

* 荒牧典俊 「唯識三十論」 『大乘佛典 15 世親論集』 東京, 1976.

2.4.6. 기타

위에서 언급한 五部の 논서 이외에 『五蘊論』(Pañcaskandhaprakaraṇa), 『中邊分別論釋』(Madhyāntavibhāga-bhāṣya), 『大乘莊嚴經論釋』(Mahāyānasūtrālamkāra-bhāṣya)이 와수반두의 八論에 들어간다. 『五蘊論』에 관해서는 주목할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고 그 외의 두 주석서는 마이뜨레아의 항목에서 언급한 연구성과를 참조하면 된다.

그 외에 와수반두의 저작으로 전해지는 『三性論』(Trisvabhāvanirdeśa) 및 디그나가(Dignāga)의 『觀所緣論』에 관한 연구로 야마구치의 업적을 들 수 있다. 『攝大乘論釋』, 『十地經論』, 『法法性分別論註』도 와수반두의 저작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훗날을 기약하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 山口益 「世親造說三性論偈の梵藏本及びその註釋的研究」 『宗教研究』, 1932, rep. 『山口益佛教學文集·上』, 東京, 1972. pp.119~162.

* 山口益 「觀所緣論の原典解釋」 『世親唯識の原典解明』 京都, 1953. pp. 409~484.

『世親唯識の原典解明』의 권말에 『觀所緣論』의 티벳어 번역 교정본과 還元梵文이 수록돼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14) 『成唯識論』의 프랑스어 번역으로 세계적인 업적으로 손꼽히는 Louis de La Vallée Poussin, *Vijñaptimātratāsiddhi, La Siddhi de Hiuan-Tsang*, traduite et annotée, 2 vols. Paris. 1928-1929. 는 사에키 교정본을 저본으로 했다.

일본의 초·중기중관파 연구사

— 나가르주나의 저서, 이해방식 그리고 解釋 —

李 惠 卿

〈目次〉

1. 들어가는 말	注釋書와 연구 성과
2. 나가르주나의 저서와 일본의 연구성과	4. 解釋
3. Mūlamadhyamaka-kārikā	5. 남겨진 물음들

1. 들어가는 말

인도불교의 객관적 이해를 위한 하나의 단초작업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이른바 대승불교의 최초의 논사라 불리우는 나가르주나(Nāgārjuna, 龍樹¹⁾)의 사상과 나가르주나사상의 계승자들(中觀派, 空思想家)에 대한 日本

1) 나가르주나의 전기 및 그의 시대 분위기에 대한 자료와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나가르주나의 生滅年代는 宇井伯壽의 說, 즉 150-250을 따른다. ① 宇井伯壽 「三論解題」, 『國譯大藏經』 論部 5, 東京, 大東出版社, 大正 11. pp. 5-9.
 1-1) 나가르주나의 전기:
 중국자료로는 ② 鳩摩羅什譯, 『龍樹菩薩傳』 大藏經 No. 2047. ③ 吉迦夜共曇曜譯, 『付法藏因緣傳』 大藏經 No. 2058. ④ 玄奘, 『大唐西域記』 大藏經 No. 2087. 티베트자료로는 ④ Bu ston, Taaranatha 불교사에 언급되어 있음.
 1-1-2) 연구성과:
 ⑤ 『望月佛敎大辭典』 권 5, pp. 4994-4997. ⑥ 八方廣喜 「龍樹의 傳記とその 流轉」, 『日佛年報』, 昭和 48, pp. 245-259. ⑦ 中村元, 『ナーガールジュナ』 人類の知的遺産 13, 東京, 講談社, 昭和 55, pp. 3-35. ⑧ 寺本婉雅 「新龍樹傳の研究」, 『密敎研究』, 大正 13, pp. 23-55.